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도자료	힘내라 대한민국

2020년 7월 7일(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7.6(월) 17:30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0. 7. 6(월)	담당부서	신북방통상총괄과 자유무역협정정책기획과
담당과장	전응길 과장(044-203-5680) 김호철 과장(044-203-5740)	담 당 자	정경화 사무관(044-203-5682) 박수정 사무관(044-203-5742)

성윤모 장관, 우즈벡 부총리와 경제협력 양자회담

- 코로나19 이후, 서울에서 첫 장관급 대면 회의 개최 -

① 신북방정책 성과 창출, 우즈벡 "부하라정유공장현대화사업" 설계계약 체결
② 한국과 우즈베키스탄 간「연대와 협력의 자유무역협정」 논의 개시

□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**은 한-우즈베키스탄 무역경제공동위원회 공동의장인 **사르도르 우무르자코프(Umurzakov) 우즈베키스탄 투자·대외협력 부총리와 7월 6일 서울에서 양국간 경제통상관계 발전과 우리기업의 우즈베키스탄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자 회담을** 개최하였다.

○ 이번 **우무르자코프 부총리의 방한**은 **코로나19 이후 외국 정부 각료급 인사의 첫 번째 한국 방문으로,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**하기 위한 양국의 정책적 노력이 반영된 것이며,

○ 우리나라 방역 당국이 마련한 방역지침을 양국의 대표단이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하였고, 향후 **코로나 이후 시대에 우즈벡, 러시아 등 신북방지역과의 경제협력을 본격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.**

산업통상자원부 장관-우즈벡 부총리 회담 개요

- (일시·장소) **2020. 7. 6(월)** 17:30~20:00, **서울 신라호텔**
- (참석자) : - (한) **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,** 통상차관보, 통상교섭실장 등 5명
  - (우) **우무르자코프 부총리,** 투자대외무역부 차관, 외교부 차관 등 5명
- (논의분야) 코로나19 공동대응, 통상·경제관계 확대 방안, 투자 프로젝트 추진 방안

□ 먼저, 양측은 의료전문가 파견, 진단키트 지원 등 **한국의 우즈벡에 대한 선제적 협력조치**와 이에 부응한 기업인의 예외적 입국허용, 격리면제 등 **우즈벡의 한국에 대한 호혜적 우호조치에 따라 양국간 신뢰협력 관계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더욱 발전하였다고 평가하고,**

○ 작년 정상회의 계기 협의한 **39개 사업과** 올해 4월 정상통화에서 우즈벡측이 제안한 **57개 사업**의 진행현황을 점검하고, **양국 협력을 상징하는 성과 사업으로 성공**시키기 위해 양국이 적극 노력하며,

○ **자동차, 섬유, 농기계** 등 양국간 전통적 산업협력을 더욱 확대하며, **방호복·마스크 공동생산, 디지털헬스 등**과 같이 **코로나 이후 환경에 부합한 시범협력사업**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.

□ 이번 회담을 계기로 우즈베키스탄 『**부하라 정유공장 친환경 현대화 사업**에 대한 **기본설계 계약**』이 양국 정부의 지원 하에 SK건설과 (우즈벡) 국영석유가스공사 간 **비대면 서명 방식으로 체결되었다.**

* 계약당사자 : (한) SK건설 - (우) 국영석유가스공사
사업내역 : 타슈켄트에서 남서쪽으로 437km 떨어진 부하라 지역에 위치한 일산 5만배럴 규모의 부하라 정유공장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SK건설은 정유공장 시설을 개선해 중유를 부가가치가 높은 경질 석유제품으로 전환시킬 계획

○ 이 사업은 작년 4월 정상회의에서 협의한 **39개 사업의 첫 번째 계약 체결 사례**로 **한-우즈벡 정상외교 성과사업의 상징**이며, 양국간 **성공 협력사례의 지속적 창출을 위한 기반**이 될 것이다.

□ 성윤모 장관은 부하라정유공장현대화 **기본설계계약 체결과 우리기업의 애로 해결** 과정에서 보여준 **우즈벡 정부의 노력에 감사의 뜻을 표명하고,**

○ 여전히 **미해결 과제로 남아있는 우리기업의 대표적 애로**(수르길 가스대금 미수금, 나보이 압축천연가스(CNG) 실린더 합작회사 부가세 부과)**를 설명하며 우즈벡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하였다.**

□ 또한, 양측은 **한-우즈벡 자유무역협정(FTA) 공동연구의 완료를 확인하고, 양국간 무역협정 협상 개시를 목표로 후속 작업을 진행**하기로 하였다.

○ 성윤모 장관은 "우리의 달라진 통상 위상에 따라 **지속가능한 무역·투자 협력모델** 구축을 목표로, **'연대와 협력의 한국형 자유무역협정 신모델'**을 준비 중"이라 밝히고, **우즈벡과의 무역협정에 이를 시범적으로 적용**할 것이라고 하였다.

○ 이를 통해 **양국간 무역·투자를 확대**하고, **한국의 산업발전 경험을 토대로 우즈베키스탄의 개발과 경제성장에 기여**하면서 **우리 기업의 진출을 확대**하는 호혜적 협력의 **선순환 효과**를 거두게 될 것이다.

□ 한편, 이번 성윤모 장관과 우즈벡 부총리 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**이날 오전에 서울에서 예비회담 성격의 차관급 실무회의가** 있었다.

○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보와 쿠드라토프 우즈벡 투자대외무역부 차관은 **제4차 「한-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 워킹그룹회의」를 개최**하여 양국의 무역투자증진방안을 협의하고 투자 사업을 꼼꼼히 점검하였다.

제4차 한-우즈벡 무역경제공동위 워킹그룹 회의

- (일시・장소) 7. 6(월) 10:00~12:00, 서울 롯데호텔
- (참석자) - (韓) **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,** 외교부·복지부·기재부 등
  - (우) **쿠드라토프 차관,** 투자대외무역부 개발협력국장, 우즈벡 대사관 등 5명
- (논의분야) 교역·투자증진, 산업·ICT협력, 투자 프로젝트 지원 등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신북방통상총괄과 정경화 사무관(044-203-5682), 박수정 사무관(044-203-574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